

# 광산경제백신회의·종교계 상생 동행...골목상권 활력 견인

## 380여 교회, 자발적 모금·주차공간 개방 등 실천 앞장

광산경제백신회의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합류한 종교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백신에 자발적인 실천과 참여가 더해져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산경제백신회의가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경제백신 시즌2'의 뜻을 올렸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지난해 4월 민·관·산·학·연 등 44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비상대책기구로 출범했으며, 이번 종교계 합류로 '완전체'를 갖추게 됐다.

광산경제백신회의와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는 협약 체결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약속을 즉시 실행으로 옮겼다.

광산구 교회 100여 곳은 응원 현수막을 시작으로 골목상권 '상생' 실천에 나서고 있다.

협의회 소속된 교회 중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사

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교회 내에서 식사가 금지된 상황을 고려해 예배 후 교인들이 소규모로 짝을 이뤄 인근 식당을 찾아 점심식사를 하는 문화도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월곡동 A교회와 도산동 B교회는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 첨단 C교회는 교인이 광주상생카드를 구매하거나 충전할 때 일정 비율의 금액을 추가해 주고 있다.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광수 목사는 직접 광주상생카드를 구매해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골목상권 이용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조 목사는 "광산경제백신회의와의 상생 협약이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는 실천을 고민했다"며 "여러 교회와 교인들이 골목에 있는 식당, 슈퍼, 마트 등을 이용하는 일부러 시작하는데 공감해 참여하고 있다"고 말

했다.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에 소속된 교회는 380여 곳으로 교인 수만 12만여 명에 달한다. 종교계의 솔선수범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있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는 지역상권을 돕기 위한 자발적 모금, 주차공간 개방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광산경제백신회의에도 긍정적인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산경제백신회의의 실무회의도 추석을 맞아 관내 골목식당, 카페 등을 이용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가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광산경제백신회의가 이뤄 낸 또 하나의 소중한 결실"이라며 "골목경제를 살리는 상생의 씨앗이 더 지속되고 광주 전체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조광수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오른쪽)이 동네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산 뒤 골목상권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음식점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광산구, 내일부터 '백신 접종완료석' 안내판 지원

광주 광산구가 지역 내 음식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테이블 안내판'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으로 음식점 시작모임 기준이 변경(접종완료자 4명 포함 8인까지)된 것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것이다.

광산구가 제작한 안내판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포함 테이블'이란 문구와 함께 '광산구 안심콜' 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 마련됐다.

'쿠브(COOV,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

명)' 앱, 백신접종완료증명서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최종 접종 후 14일 경과자)가 확인되면 테이블에 안내판을 세워두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광산구는 17일부터 관내 20㎡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 5000여 개 업소에 안내판을 배부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 이미지를 광산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거리두기 연장과 달라진 모



임 기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안전한 음식점 이용을 돕기 위해 안내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산구, '국민정책디자인' 휴블런스 시범 운영

### 이동지원부터 진료동행까지...건강약자 윈스톱 사회돌봄

광주 광산구가 초고령사회 복지의 새로운 기준이 될 '휴블런스'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휴블런스'는 '휴먼(사람)'과 '앰블런스'의 합성어로,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함에도 가족 돌봄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건강약자 병원동행' 서비스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지원과제에 선정돼 5월 국민정책디자인단인 출범하며 정책 이해, 현장 및 이용대상자 심층조사, 아이디어 발전하기 등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 광산구는 지난 8월 26일부터 우산동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재활병원 입원자, 홀몸노인 등 5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청주에 거주하는 자녀가 먼저 광주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다.

이들의 외래 진료 시 광산시민수당과 연계해 확보한 전문 매니저들이 투입된다. 집을 나서 병원으로 이동할 때부터 병원에 도착해 진료받고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곁에서 동행하며 주인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늘행복마을건강센터가 중심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광산구는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나 개선점에 대해선 국민정책디자인단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휴블런스'를 단순한 이동지원을 넘어 정서와 정보 동행까지 아우르는 윈스톱 사회서비스 모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작업



광산구 휴블런스 동행매니저가 한 어르신의 재활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해 진료 과정을 돕고 있다.

도 지속하고 있다. 또 지역 복지관, 동 주민센터, 돌봄 수행기관 등과 연계해 추가 대상자를 발굴, 연말까지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휴블런스' 시범 운영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적절한 병원 이용, 고립 해소 등 주민 삶 전반을 보살피는 복지 안전망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사장님 다시서기론' 조기 완료

### 165개 소상공 점포에 총 27억3600만 원 자금 지원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특례보증 '사장님 다시서기론'이 조기 소진됐다.

광산구는 지난 3월 광주은행, 광주어룡신협,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와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섰다.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1억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했으며, 광주은행과 광주어룡신협도 각각 5000만 원씩 출연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모인 출연금의 12배를 대출 보증재원으로 운용했다. 광산구는 이와 함께 자

체 구비로 1년 동안 2% 이자도 지원했다. 이 결과 총 165개 소상공인 점포에 27억3600만 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점포당 평균 1650만 원을 빌린 셈이다.

업종별로 지원 비중은 음식·숙박업 61건(36.9%), 도·소매 47건(28.4%), 기타 개인서비스 14건(8.4%), 교육서비스업 13건(7.8%) 등 순으로 나타났다.

광산구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지역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적극행정 행안부 표창

광주 광산구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활용, 중점과제 추진사항 등을 점검해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6곳 등 9곳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

광산구는 부산 북구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구 부분 우수 기관에 포함됐으며 광주 자치구 중에선 유일하다. 광산구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 제시, 사전 컨설팅 등 제도 활용과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급과 관계없이 토론회하고 소통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한 민선 7기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부드러운 리더십'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표창 수여식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Card **VISA**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행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국 **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 상무동지점 062)372-3741~2
- 용산지점 062)526-0222~3
- 지평지점 062)381-8212~3
- 쌍촌지점 062)381-6551~2
-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 화정지점 062)372-0421~3
-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 유동지점 062)512-1984~5
- 농성지점 062)361-4472~4
- 동림지점 062)513-8521~3
- 유덕아니로마트 062)373-3235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운암지점 062)527-3295~6
- 유덕지점 062)373-3235~6
- 아니로마트점점 062)511-2901~3
- 동운지점 062)528-2640~2
- 비틀지점 062)381-1971~2
- 운천지점 062)371-2772~3